진리 평화 창조

발행인 김 동 선
편집위원 성 창 용
편집장 김 형 만
외 대 신 문 사
전화 ☎ 7128 (직통)
우편번호 13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동270-1
인쇄인 조선일보사 방 우 영

외대학보

1958. 3. 27. 제 3 종우편물인가
(등록번호 제나 253호)

제 3 0 3 호
<주간>
1980년 10월 3일
매주 금요일 발행
(1년 구독료 5천원)
동폭 1960년 7월 1일
창간 1955년 4월11일

THE OE DAE HAG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81학년도 입학정원 3,185명선

본교 2,405명, 용인 캠퍼스 780명 정원
외국어 사범대 과별 모집, 전일제수업 부분 실시
81학년도 입학자 졸업정원은 총 2,450명

○……문교부는 지난 9월30일 81학년도부터 종합대학으로 승격되는 본대학의 81학년도 입학정원과 81학년……○
……년도 입학자 졸업정원을 확정, 발표했다. 문교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81학년도 본대학의 입학정원……○
……은 본교의 경우 2,405명으로 올해의 1,545명에 비해 860명이 대폭 증원됐으며 용인캠퍼스는 300명……○
……에서 480명이 증가된 780명을 모집하게된다. 이로써 81학년도 본대학 전체 신입생은 무려 3,185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올해에 비해 1,340명이나 증가된 숫자이다. 또한 본대학의 81학……○
……년도 입학자 졸업정원은 본교의 경우 1,850명, 용인캠퍼스는 600명으로 모두 2,450명이다. 이에 따……○
……라 81학년도 신입생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게되는 학생은 숫자상 735명이 필것으로 보인다. ……○

종합대학 설치규정에 따라 신설된 이공대학은 수학, 물리학, 화학등 3개학과 160명을 모집하여 용인캠퍼스에 신설키로 되어있던 법정, 상경대학은 상경대학은 경제, 무역 2개학과 정원 100명의 신설인가를 받았으나 법정대학은 인가를 받지못해 취소되었다.

또 인문대학은 역사학, 사회학, 철학과등 철학과만이 정원 40명으로 신설인가를 받았다.

현재 본대학당국은 용인캠퍼스에서 수학키로 예정돼있는 이공대학과 인문대학 철학과를 문리대학 (文理大學)으로 병합하는 방안을 구상중에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용인 캠퍼스 외국어대학 (현. 학부) 에 중국어과 일본어과 포어과등 3개학과 (정원 각40명) 가 신설되었다.

이로써 본대학은 외국어, 법정, 상경, 사범, 이공 (또는 문리) 등 5개 단과대학으로 구성되게 된다.

종래의 주·야간제는 전일수업제의 실시로 인해 유명무실화되었으나 신입생모집은 조조(주간), 오후(야간)등으로 구분, 별도로 실시하게 될것으로 밝혀졌다.

각 대학별 (현재학부) 모집정원 및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어 대학

외국어대학의 81학년도 모집정원은 올해의 신입생정원 1,125명 (주간 715명, 2부410명) 에서 360명이증원된 1,580명(주간840, 야간380)선에 이르게 되며 81학년도 입학자 졸업정원은 1,220명으로 올해보다 95명이 증가됐으며 모집은 예년과 같이 과별로 실시하게 된다.

가장 많은 증원이 예상되는 영어과는 현재의 모집정원95명에서 최저 160명에서 최고 200명선으로 늘어나게되며 2부 영어과 역시 80명에서 30~50명이 늘어난 130명선이 필요으로 보여지고 있다.

불어, 중어, 독어, 서어, 일어과등 5개학과도 내년도신입생모집정원이 100명선을 넘어서게되며 노어, 아랍어과는 현재의 30명, 80명에서 50명선으로 조정됐다.

이외의 학과는 졸업정원제 실시에따른 30%증원을 제외하면 거의 변동이없으나 현재 30명 또는 40명 정원의 마인어, 포어, 이탈어과등 2~3개학과가 20명으로 정원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유동적이라고 관계자는 전한다.

한편 외국어대학은 과별모집에따라 졸업도 과별졸업정원제를 채택하게되며 2부대학에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영어, 불어, 중어, 독어, 노어, 서어, 일어, 아랍어등 8개학과만이 전일제수업을 받게되며 이때리어과등 나머지 10개학과는 예년처럼 주간에만 수업하게 된다.

<본대학 대학별 모집 정원 최고한도>

본교	졸업정원	입학정원
외국어대학	1,220	1,586
법정 대학	150	195
상경 대학	220	286
사범 대학	100	130
이공 대학	160	208
계	1,850	2,405

용인	졸업정원	입학정원
외국어대학	500	650
상 경 대	100	130
계	600	780
총 계	2,450	3,185

※81학년도입학자기준

법정대학

교육사회학부에 편성되었던 종보학과가 법정대학에 소속하게됨에 따라 법정대학은 경찰, 행정, 법학, 홍보등 4개학과를 계열별로 모집하고 졸업하게 되었다.

모집정원은 190명에서 최고 195명으로 올해보다 60~65명이 증가됐으며 졸업정원은 150명으로 확정됐다.

법정대학도 81학년도부터 전일제수업이 실시된다.

상경대학

모집정원 286명으로 현재의 정원 210명 (주간80, 야간130)에서 70~76명이 증원되는 상경대학 졸업정원은 주간 120명, 야간100명등 220명선이 필요으로 보인다.

상경대학 역시 계열별모집, 계열별졸업정원제가 적용되며 전일제수업이 실시된다.

사범대학 (교육학부)

과별모집과 과별졸업제를 채택한 사범대학은 영어교육, 불어교육, 독어교육, 한국어교육등 4개 학과등 한국어교육과가 현재의 20명 정원에서 40명으로 증원된 것과 130%모집에따라 과과별 30%증원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없이 모든 130명 (졸업정원100명) 을 모집한다.

전일제수업은 실시하지않는다.

이공대학

81학년도부터 첫 신입생을 모집하는 이공대학은 수학, 물리, 화학등 3개 학과 156명 (졸업정원120) 을 모집하여 용인캠퍼스에서 수학할 예정이다.

전일제수업은 실시하지않으며 계열별모집, 졸업하게 된다.

<용인캠퍼스>

외국어대학

현재의 영어, 불어, 독어, 노어, 서어, 아랍어과등 6개학과에서 중어, 일어, 포어등 3개학과를 증설하여 모두 9개학과를 거느리게되는 용인캠퍼스 외국어대학은 내년도 신입생을 650명 선발하며, 졸업정원을 500명으로 확정 했다.

각 과별로 정원을 살펴보면 영어과가 156명(졸업정원 120) 으로 가장 많고 불어, 독어과가 각 1백명선 (졸업정원80) 을 넘어서며, 나머지 학과는 모두 52명 (졸업정원 40) 이다.

역시 과별로 모집, 졸업하게 되어있다.

상경대학

경제, 무역등 2개학과로 졸업하는 용인 상경대학은 정원130명 (졸업정원100)으로 계열로 모집하며 계열별졸업정원제가 폐지된다.

장학금 수혜자 678명 총 9천4백41만여원 지급

학생처에서는 9월26일 장학생 선발규정과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금학년 2학기 장학금 수혜자 678명을확정, 발표했다.

학과장과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심의, 확정지급되는 금학기 장학금 총액 9천4백41만 8천3백94원은 지난1학기 장학금 총액 8천3백23만여원보다 1천1백19만여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이번 장학금 수혜자는 총등록대상자 5,260명의 13%에 해당하는 것이며, 외부장학금과 문교부 저소득장학금까지 합한 총수혜자는 948명으로 전 수혜대상자의 18%에 해당한다.

종류별로는 학장, 동림장학금 각 3명 29만원, 복대생장학금 36명 각17만원, 수장학금 231명 각14만원, 우장학금 298명 각13만원, 도서관장학금 3명 각12만원 등으로 성적우수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다.

이외에 고시 1차합격자 17명에게 각 9만원, 기타 25명에게 8백여만원이 지급되었고, 근로장학금은 아직 미정이다.

또한 외부장학금중 동문장학금 3명, F.G.S.I.A.와 에게 지급되는 정부특별장학금이 18명에게 5백40만원이지급되고 (박동명 장학금 6명 각35만원, 국무총리 장학금 6명 각30만원, 상공부장관 장학금 6명 각25만원) 또 5·16장학금 35만원이 7명(대학원 1명포함) 에게 지급되었다.

기타 아산사회복지재단 장학금이 30만원으로 3명, 삼학법동재단이 25만원으로 2명, 한서장학재단이 35만원으로 2명, 연강학술재단이 35만원으로 3명등에게 각각 장학혜택을 주게되었다.

어문초점

불확실한 사실을 추구한다는 의지가 텅 빈 방에 아무렇게나 흩어진 소도구사이에 배어있다. 흰 벽위에 아로새겨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말이 「돌아온다」는 사실의 불확실성마저에도 어떤 확신을 가지게 한다.

서어클작품 전시회 13일부터 18일까지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학내에서 각종 서어클의 작품전시회가 개최된다.

미술반에서는 13일부터 18일까지 학생회관 3층 회의실에서 유화·영상·수채화등의 미술작품 40여점을 전시하며, 15일부터 18일까지 학생회관 212호 소극장에서는 서예반의 50여점의 작품 전시회가 있다.

◇79년 서예반 작품전시회

본대학 논문집 출간
어문학 17편, 사회과학 6편 수록

본대학 출판부에서는 지난 9월17일 논문집 제13집을 간행하였다.

4×6배판에 녹색커버장정의 이번 논문집은 어문학분야 17편과 사회과학분야 6편등 23편의 교수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어문학편에는 동구문학연구(국어과 김광요교수) 서반아어 시속의 배구 (排句)(서어과 민용배교수) 등이 실려있으며 사회과학편에는 유부즈만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등이 실려있다.

◇논문집 제13집

제13회 모의 올림픽
18개 종목으로 경합, 17일 폐회식

지난 5월28일 개최키로 했던 개교26주년기념 모의올림픽이 오는 10월13일부터 17일까 5일중만 거행될 예정이다.

13일 본대학운동장에서 거행되는 모의올림픽은 개회식을 선두로 구기, 육상등 남녀 각 종목의 경기가 벌어지게 되는 이번 모의올림픽의 개최식 방일에는 선수입장과 오륜기게양, 선수선서등에 이어 성화점화후 기념행사가 있을 예정이며 폐회식은 17일 오후 4시에 거행된다.

금번 모의 올림픽 종목과 경기방식을 보면 남학생은 축구·야구·농구·핸드볼 배구 (6인제)등 5개종목중 3종목을 택해 출전하며 여학생은 줄다리기는 각과가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여학생은 소프트볼·농구·배구 (6인제) ·핸드볼·박구 중 3종목을 선택 출전하며 남녀구기경기는 「토너먼트」로 진행된다.

육상경기의 경우 남학생은 100㎜경기, 800㎜릴레이 등에 출전할 수 있으며 여학생은 100㎜경기, 400㎜릴레이 등에 출전할수 있다. 또 10㎞단축마라톤은 남·녀 모두 출전할수 있다.

이번 모의 올림픽에는 과대항 고수 400㎜릴레이 경기가 새로 추가되었으며 법의경기로는 학내 사무직원의 배구경기 (9인제) 가 펼쳐진다.

바로 잡음

지난 302호 기사중 교무처장은 임천권교수가 아닌 임진권교수이며 조재현조교수는 태국어과가 아닌 힘남어과장서리이며 박도효학단 법정학부 학생장은 홍림표군 (D·3) 이 아닌 김형민(D·3) 군이었으므로 바로 잡습니다.

◇「교육발전 특별위원회」구성 전기·종합대대책의 일환으로 본대학의 전기·종합대학화에 따른 「교육발전 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2일 구성되었다.

학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본위원회는 학내제반문제, 홍보활동, 교수증원, 종합대학에따른 기준개편등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명단은 아래와 같다.

▲성원용 (학보주간·부교수)
김한기 (어가스주간·부교수)
정기 (홍보학과·조교수) 박성녀 (홍보학과·조교수) 이은정 (교과과정 상임위원·조교수) 민병훈 (기획실장·조교수) 김현정 (서반아어과·부교수)

용기(勇氣)의 문제

▲용기 (勇氣) 는 「~할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을 긍정할 수있는」 마음의 상태를말한다. 그것은 인간존재의 본질적기능이며「최고(最高) 의 선 (善)」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정복할 수 있는 윤리학적 가치와 사회학적 요소로 이미 그리이스 시대부터, 논의되어온 문제중의 하나이다. 순전히 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학자「폴 틸리히」는 존재적 (存在的) , 정신적, 도덕적 자아긍정을위협하는 비존재 (非存在) 에 대한 불안 (不安) 으로서, 죽음과 무의미성과 정죄 (定罪) 를 들고 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은 고대의 스토아주의적 (的) 용기에서, 또 정죄에 대한 불안은 중세의 종교적 (기독교) 인 용기에서 그리고 현대의 실존주의적 용기는 삶의 무의미성에 대한 불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되는」 혹은 「존재 (存在) 자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용기의 실천윤리로 집약하고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상가는 하나님(God above God) 만이 이 세가지 유형의 불안을 포용할 수 있고에 이것에의 세속적인 한달이 가라와 거고 있는 데도 캠퍼스 곳곳에서 어설픈 낙관 (樂觀) 과 겉은 체배주의에 젖은 치졸한 비관론 (非觀論) 이 들리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보다 새로운 사람에서 부언 (付言) 하자면 반성의 계기에서 새로운 전기 (轉機) 에의 용기를 마련할 대학의 면학풍토 조성에도 불구하고 불려한 체육계의 측제는 큰 비되어 있지만 이탈다할 학술제 하나 계최중에 없다 한다.

▲거듭 확인하거니와 용기 (勇氣)는 「~할에도 불구하고 자기자신을 긍정할 수있는」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삶의 자세이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일때는 신 (神)의 성령 (Divine Spirit)이 보내는 선물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회적 용기에는 그와는 반대의 집단요소에 의한 사회적 종교적요소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저한 자기반성과 내부검증으로부터 나와 너의 관계, 우리와 집단과의 책임의식에서 나오는 만용 (蠻勇)이 아닌 진정한용기를 찾아야 할 때다. 적어도 그에 대한 방법론이라도 찾아야 한다. 어설픈 낙관과 지졸한 비관은 버릴 때가 왔다.

<김형만>

서울대학교 학술답사

▲안부 (安否) 인사의 변로, 「~살았어」 혹했다. 학점을 어떡, 장학금 받았어?
▲대학생 풍월안보 연수교육에 신청자 클이어이제야 「무언가를」 깨달은 모양?

제28기 수습기자 모집

대학은 이 시대의 소방이며 흔들리지 않는 지성의 진원지입니다. 창간이래 대학인들의 연구자세 사명을 일어켜 온 본「외대학보」는 대학사 (史) 와 시대의 증인으로 지성의 횃불을 높이 올릴 제28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개성있는 미학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격 : 1학년 남·여재학생
모집부문및 인원 : 일반기자○○명, 사진기자, 컷기자 약간명
제출서류 : 본사 소정양식 응시원서
배부및 제출처 : 외대신문사 (학생회관 311호) , 외대학보 (학생회관 309호)
시험일시및 장소 : 10월10일 (금) 오후 5시, 학생회관 208호
시험과목 : 국어, 일반상식, 기사작성, 논문, 사진·컷심기 (사진·컷기자에한함)
원서마감 : 10월10일 오후 5시
※사진기자및 컷기자 희망자는 지원서에 정확히 명기할것

외 대 학 보 사

民俗競技의 再発見① 씨름

근검·절약·저축의 생활화

우리 民族을 이끌어 온 뚝심과 끈기

●朝鮮시대의 씨름장면(正祖때 画家인 檀園 金弘道의 風俗画帖에서)

우리 고유의 민속경기 씨름은 角抵(觝), 相撲, 爭校, 角力, 角校, 角戲 등으로도 불리며 멀리 上古時代로부터 전승되어 왔다. 歷史資料에 씨름이 등장하기로는 滿洲 通化省 輯安縣의 高句麗 옛 수도 丸都山城(山上王 13년·AD 209년 전도)에서 1905년 발견된 角抵塚 主室 東壁 벽화가 最古. 뚜렷한 외곽선이 없는 沒骨法을 사용한 이 벽화는 6세기 초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씨름은 50cm이상의 고운 모래를 깔아 만든 직경 7m의 원형 씨름판에서 두사람 사이에 벌어진다. 경기는 샅바를 오른쪽 다리에 걸고, 오른손으로는 상대방의 허리샅바를 잡고 왼손으로는 상대방의 다리샅바를 잡은 뿌 서로 오른쪽 어깨를 맞대고 심판의 신호에 따라 시작, 서로 힘과 기량을 겨뤄 먼저 상대방을 넘어뜨리거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는 쪽이 승자가 된다.

상대방을 끌어당겨 위로들어 좌우로 돌리고 잦히며 뒤 또는 앞으로 넘어뜨리는 허리기술(배지기·재치기·들려치기 등), 상대방을 자기의 발과 다리로 걸고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밀며 앞으로 틀어 돌리면서 뿌려 넘어뜨리는 다리기술(안다리걸기·안다리후리기·바깥다리걸기·바깥다리후리기 등), 상대방을 손으로 당기거나 밀면서 앞으로 젖혀 넘어뜨리는 손기술(앞무릎치기·뒷무릎치기·밀미잡이·팔걸이 등)과 공격하는 상대방을 역이용하여 넘어뜨리는 되치기(안다리걸기의 되치기·뒷샅바잡고 바깥다리 걸기·맞배지기 등) 등 씨름경기의 공격 또는 방어기술은 무척이나 다양하다.

힘찬 기합소리와 얼떨결 응원의 농악소리가 함께 잠주는 씨름판은 광상 접음이 꿈틀거리고 골모르는 함성이 넘실댄다. 배지기 공격에 안다리걸기 반격, 뒷무릎치기에 바깥다리 역습, 덧거리 시도에 엉덩배지기 응수… 모든 메치기(공격기술)와 이에 대한 되치기(방어기술) 역습이 전광석화처럼 재빠르게 오고 간다. 우람한 어깨와 다리를 맞부딪치며 지절 줄 모르는 젊음과 꺾일줄 모르는 기백으로 겨루는 멋진 한판 승부—

체력·기술·투지 등을 겨루는 씨름은 한마디로 뚝심과 끈기의 경기. 상대방을 압도해 나갈 수 있는 뚝심과 강인한 투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경기다. 죄후의 승리를 겨루기 위해서는, 壯士에게 내려지는 황소를 끌고 언덕배기를 넘어 당당히 마을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끈기있게 버티며 혼신의 힘을 다해 힘껏 뚝심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다. 祖上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民族의 경기인 씨름—, 한대감각에 맞게 연구·발전시켜 우리 국민의 대표적인 경기종목으로 키워나갔으면 한다.

現代

사설

신뢰와 협동으로

——면화의 대열에서

가을 하늘이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다. 해마다 이 즈음이면 우리는 가슴깊이 없어도 모든 것을 차지한 듯한 마음의 풍요를 느껴볼 수 있고, 없을에 오가는 정넘이 마냥이 넉넉하지는 않은 빈궁는 참상이나 부끌없는 포오(驕傲)가 아니라, 어슴내 흡려은만이 가시고, 오랜 기다리면 결실의 보람을 함께 누림으로써 그러하다.

보라, 밤이 젖었던 농부의 앙가슴에는 한아름의 수확이 그득히도 안겨져 어제의 노고를 씻어주며, 때앞을 앞해 손을 잡린면 파묵의 가지에는 탐물이 헐철 조르는 열매가 가슴 헛넓에 젊이 붙어있다. 이 모두가 사나운 바람, 궂은 비를 무릅쓰고 생명의 외지와희망이 열매를 넣은 아픈입고 인속한 믿음의 헌상이 아닙가, 이것이가슴이 주는 희재다.

생의 원리가 이러하고, 역사의 창조·발전·번영과 영속이 이와 타를 바 있으리. 풍서고금에는 부수한 번영과 쇠미가 수없이되풀이되었지만 그러한 역사의 그날에는 모두가 필연의 곡절이 있고, 숭정과 쇠잔의 역사회전에는 정이의 기쁘이나 허망한 핵은 (厄運) 이 따로 없었다. 인간이 법어온 본부노력에서 성하고, 인간이 저지른 과오의 도항이 원구(怨仇)와 나약의 함정을 자초한것이다. 천시(天時) 지리(地利) 가 제아무리 인화(人和) 를 초극한다는 사람이 떠받치는 힘의 중심을 어찌 좌우하겠으리.

우리는 그간 기막힌 난국을 딛고 오늘에 이르렀다. 국제의 존임이 우리의 위기에 놓였다 함이 어찌 어느 한 사람의 독단과 편견소치로 볼 수 있었으랴. 역사의 죄리과 풍망의 원리로, 시대와 공간은 다를지언정 인과의 공리는 고금이 한결같다. 우리가 섬과 떼어진 안팎의 우리의 근대사를 돈이켜보, 심로 부수한 내부외환의 과중에서 생존이라는 기본의 욕구가 얼마나 위급게 지탱되어 왔는지를 알 것이다. 그러나 그때마다 최후의 일각에서 점요절금의 부지와 자주의식에 새로운 생명적 활기를 불어넣어, 면면한 전통과 민족적 정기는 장인과 의지로 지켜졌고, 심부와 재기의 과정을 반복하면서도 일보일보 전진을 계속하여 마침내 조국 근대화의 성업을 성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는 이리하여 싶고, 그렇게 싸우면서 키워온 나라의 기틀을 붙안고, 내일의 광명을 향해 오붓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런 시간 학원이라는 안온한 울안에서 탐구와 토야의 오솔길을 걸어가고 있다. 식금은 비록 작은 씨앗을 뿌우는 평은한 고독경일지라도 심은 국가 백년대계의 묘판이 자라는 신성한 도장이며, 이의 허실(虛實) 이 연사(任事) 의 성패를 좌우하듯, 우리들의 거보는 곧 나라의 운명과 직결됨을 다시하번 상기하자. 어떠한 비바람이 최지를 전중될지라도, 다가올 광정과 복지를 위하여는 학원의 성장과 전진은 일시도 정체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학문적인 도야가 곧 국가의 부강을 촉진함다는 연대책임에 투철할때, 우리는 연학정신에 크나큰 보람과 느낌 수 있을 것이다.

5 천의대생이 마침내 오손도손 자리를 함께하고 있다. 오로지 이 학림에는 진리탐구의 열풍과 내일을 바라보는 원대한 포부로 충만되어야 하며, 사소한 아쉬움과 미흡은 사려를 삼아 가고 역사를 탓 창조하는 힘로써는 참기하게끼 과정하는 과제로 받아들여, 공동운명을 걸어진 우리들의 협동과 관용 신뢰와 이해로 기꺼이 풀어나가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개교 4 반세기이에 종합대학으로의 승격을 이룩했다. 이것이 공전의 성과가 아니오, 그간 우리가 쌓아 온힘 노력의 결정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책임은 그 규모의 확대만큼 무겁고 크다.

앞으로 우리 학림에 오직 신뢰와 협동으로 부족이은 좌목한 분위기와, 일취월장하는 꼬시를 통에 지고 오직 심오한 진리에 도전하는 보람찬 면학의기쁨이 고양되기를 바랍뜬이다.

김 정 위

(이란어과·부교수)

이란과 이라크의 석유분전쟁은 석유수입국인 우리에게도 놀랍과 직정을 안겨주었다. 그만큼 그것의 사배발전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이라크의 불안정한 국내 정정(政情) 이 그 주인 (主因) 을 이루고 인접국가와의 이해관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인것 같다. 이라크는 지리적으로는 남북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의 두 강이 흐른 페르시아만 어구에서 합쳐 사멸아랍강을 이루고 역사적으로는 이슬람의 두파 손니파와 쉬아파가, 번종세를 이루고 있는 나라다.

이라크는 20세기 초까지 손니파를 대표하는 오토만 터키제국과 쉬아파를 대표하는 이란과의 전쟁터였다. 또 중세에 이슬람제국의 핵수도였고, 손니이슬람이 정치적으로 완속한 것도 바로 오늘의 수도 바그다드였다. 반면에 쉬아파의 발생지도 이라크의 남부지방이었다. 여기에는 쉬아파의 성지, 나자프와 카르벨라가 있다.

즉 이라크의 종인구 1천2백만 가운데 반은 쉬아파이슬람교 따르고 주로 바그다드 이남지방에 살고 있다. 그들은 모두가 아랍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아랍인이다. 나머지 반은 주로 바그다드 이북지방에 살고 있다. 그러나 손니파는 아랍인과 주로드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비율은 3대2 정도다. 주로드족은 자치를 요구하던지 중앙정부에 반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손니·쉬아 양파분쟁보다 자치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제일차세계대전중에 이라크는 영국군에 점령당하고 1920년 전쟁에 진 오토만 터어키로부터 분리되어, 영국의 신탁통치령이 되었다. 영국은 아랍인에게 신망있는 에인자 모함메드의 후손이며 메카의 지배자인 알리의 아들 파이살을 이라크왕으로 모셔왔다. 그는 손니파에 속하였다. 따라서 그는 주로 손니출신을 등용하였다. 1932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얻은후 그의 손니편이는 면용 노릭화되었다. 그것도 주로 인구의 30%에 불과하는 아랍계 손니인이었다. 1958년 바아스당(아랍사회주의 부흥당)의 무혈쿠데타에 의하여 왕정이 무너진 이후에도 이라크 사회는 군의 고급장교 정부고급관리 및 상류층을 아랍계 손니로 구성되어있다. 그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쉬아파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는 제일 푸보시로 꼽혀있었다.

더구나 1913년에 벌은 이탄·이란과 국경협정은 영국의 입김때문에 이란에불리하게 체정되었다. 사빌아랍강을 사이에 두고 항국은 약 100km의 국경을 공유하고있다. 국제해일 관례에 의하면 강의 중앙선이 국경선이 되어야 한다. 그런나 이란측의 강변이 국경선으로 체정되었다. 더구나 이란의 유일한 항구도시인 호람샤와 아바단은 이 강의 연안에 있다. 따라서 관리하게 되었다. 물론 아랍토연합국은 이 섬들이 자국령 이라고 주장했으며 아랍국가들도 이것을 지지하였다.

이란의 군사력이 월등하게 신장되자, 이란은 1913년 이라크와의 국경협정을 무효라고 선언하고 호람샤와 아바단항을 되나도는 이란심장에게 이라크측의 세관검사를 거부 하게 하였다. 여기서 양국은 국경분쟁을 가져오게 되었다. 더구나 이란은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자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라크의 쿠르드족 반란의 지원을 주었다. 이것은 이라크의 북방의 종교구조 때문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아랍민족주의를 대표 맹렬히 부르짖게 되고 비아랍인 이란을 증오하였다. 이것은 이라크의 쿠르드족 반란의 지원을 중단함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였다.

호메이니옹의 이란이 이라크의 바아스당정권을 부신문자 즉 반이슬람정권이라고 공박하면서 이라크내의 제자를 통하여 쉬아파 쿠르드족을 중대케 지원하였다. 이들은 이라크내의 복잡한 종교구조 때문에 종교와 정치를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외국어대학교 캠퍼스·당운

<차 례>

1. 프롤로그
2. 입시체제—전기에로의 전환
3. 종합대학—규모팽창에 따른 문제
4. 졸업정원제와 입학정원의 증가
5. 에필로오그—대학,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대학은 제도화되어야만 하고 대학의 이념은 조직화에서 구체화되며 그 정도에 따라 대학의 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학의 「제도화」가 국각적으로 대학의 발전이라는 대명제에 선행되어야만 조건이라면, 「아스퍼스」는 말하되 제도화의 정도는 바로 「대학의 질」, 나아가서는 「대학의 발전」이라는 의미에 다름아닐 것이다.

「7.30 대학교육개혁조치」로서 펴어도 이제까지의 대학운영체제가 근본적인 수정을 요하게 됨으로써 제도가 변화되는한 「게기」가 되었다. 더우기 본 대학이 수년전부터 추진해 오던 전기종합대학화가 이번의 「교육개혁조치」와 합쳐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주목 (注目)감 요한다.

문교부는 8월29일부로 본대학을 비롯한 4개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을 발표하면서 「종합대학교」인가의 심사원칙을 「대학운영의 종합평가 우수, 학교규모, 설립연륜」등에 두었다고 했다. 이것은 곧 대학의 「제도화」선행문제와 관련시켜 볼때 제도화의 정도가 「대학의 질」을 결정짓는다는 말을 상기시켜준다. 더우기 탄파대학교의 「대학의 발전」이라는 것이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은 「학칙강의 금령」이라는 것이 이미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학칙강의 금령」이라는 대학이 수행해야 할 하나의 당위에서도 증보된 인식할 수 있는것이다. 「7.30조치」와 그에 따른 본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이 또다른 의미에서 연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입학정원의 대폭증가」에 그 초점을 맞추어 볼 수 있다.

이에 덧붙여 입시체제의 전기전환도 결국 전술한 바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의 루기, 종합대학들이 다투어 전기로 입시체제를 전환하게 된 배경에 비추어 볼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81학년도 예비고사 성적과 내신성적, 대학자격경가로 대인전형이 심시됨에 따라 이른바「논술고사」를 대폭 실행할 것이고, 각 고등학교에서는 중시생의 에시성적에 따라 파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 (Data) 를 가지고 「응시사정」을 할 것이므로 대부분의 응시생은 예시점수의 「서열」이 대학에 응시하게 되어 발락하는 예가 적어진다. 따라서 「루수학생 유치」라는 신입생선발의 우선적 목표에 있어서 우려되는 전듭이 많은 루기대학들은 대이상 무기로 낚아있는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기전의 전환은 또다른 의미에서는 대학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루기대생 전반적인 경향이었던 「심리적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다만 기존의 전기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어느정도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그에따른 각대학의 특성확보도 신중히 고려해야할 단계에 와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7·30 교육조치」와 관련한 본대학의「전기종합대학화」와 그 배경을 할아 보았지만 그간 꾸준히 종합대학화로의 도약을 위해 준비해온 대학당국의 성사진을 조심스럽게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본보는 이미 지난해 「종합대학화, 그방안은 없는가」라는 기획물을 마련해 종합대학화가 이룩되기까지의 선행되어야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거친해본 바 있다. 이에 구체적인 미리을 나열해야 할 시점에서, 그간 본대학은 종합대학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미비된 점이 있다면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를 계속해야 필저도 살펴봐야 한다.

본대학은 「전기 종합대학」이 확정되자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안정특별위원회」(약장 비롯 8명) 을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는 종합대학화와 전기전환에 따른 전반적인 학내의 문제점 만을, 처리하며 대외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기종합대학화에 따른 모든 문제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되어있다.

종합대학화에 따른 몇가지 문제점에서도 부지확보 문제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대학 재단은 45만평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고 금년에도 30여정도를 추가, 부지매입, 기반조성에 힘쓴 것이라고 한다. 현재로서는 음인에 설치한 분교의 시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용인캠퍼스로의 「외국어대학」의 이전은 1990년부터 10년정도에 걸쳐 완냘예정이라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곧 「예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관심을 끄는 것은 학교명칭에 관한 문제점 것이다. 이미 본보는 「복수종합대학」으로서의 몇가지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거나와 이는 최근 학장과의 인터뷰에서필도 확인된바 있다. 즉, 외국어대학으로서의복수성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대조항을 반듭지않는 한 이공대를 설치하지 않는 「복수종합대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당국은 공대설치에 앞서 소수이은 화학분야인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기반으로 이학부를 신설하고 외대의 복수성 건지에는 아부린 영장이 없음 것」이라고 해기하고 있다.

결국 보편적인 종합대학교의 면목을 갖추면서 「전학이념과 이제까지 쌓아온 외대의 성가」(본보284호) 를 손상시키지 않는, 양자가 상조보완해 나가는 식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주 (이)씨는 한 공대 (工大) 설치가 불가피해지리라 본다면 외대의 복수성고수의 가능성은 어렵히 문제점으로 남는다.

문교부의 「수도권 인구 억제정책」으로 금지 되었던 입학정원의 증원이 이번에 풀리게 됨으로써 대학의 문호는 넓어졌으나 여기추해진 측면으로써 캠퍼스 포화상태는 본대학의 경우 더욱 심화된 문제점이다.

학교당국은 81년 8월부터 용인본교를 「용인캠퍼스」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대학정원의 팽대함은 이에 반해 수성을 여전히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대조항을 반듭지않는 한 이공대를 설치하지 않는 「복수종합대학교」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교당국은 공대설치에 앞서 소수이은 화학분야인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를 기반으로 이학부를 신설하고 외대의 복수성 건지에는 아부린 영장이 없음 것」이라고 해기하고 있다.

결국 보편적인 종합대학교의 면목을 갖추면서 「전학이념과 이제까지 쌓아온 외대의 성가」

제도화의정도「대학의질」결정

특수성유지와「종합대학화」상호보완 필요

◇캠퍼스의 과포화 상태는 학생의 복지와 관련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기자의 딸깍

교육정상화 위한 투자 절실

한국 교육개발원을 찾아서——

근자에 세계각국이 앞을 다투어 교육연구에 열을 올리게 됨 것은 「국가의 발전은 교육체제의 발전을 앞지를수 없다」고 하는 말이나, 「국력을 효율하게 정비코 교육체제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람하다」는 주장처럼, 한 나라의 장래는 국민교육의 정비여하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은 중언 (重言) 할 필요치않는 명심이다.

이른바 7·30 교육혁명 조처이후 한국교육의 발전 및 그 상향(vision)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을 발족해 보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정책연구실에서는 7·30교육혁명 조처의 배경과 취지를 들는 기자의 질문에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변동 과정에서 학교교육 혁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며 경제성장과 병행된 교육의 양적 팽창속에서 누적되어 온 교육문제들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대한 위기로 노출되어 이에 한국교육발전의 새로운 방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저간 (這間) 의 배경을 압축해 준다.

한국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5조 (兆) 에서 10조 (兆) 에 이르는 정도의 교육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정설로 되어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적정한 투자 없이 제도의 변화만을 꾀함은 시도함 직 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반복된 실책이라고 할때, 지금의 교육혁명 조처도 그 같은 전철을 밟지않을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전체예산의 18~19%를 차지하는 거대한 문제산만으로도 부족한 현재 교육재원의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은 교육공채발행, 교육차관도입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중 교육세 신설이 가장유력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교육세신설의 취지는 교육여건의 악화로 인하여 교육목표의 효과적달성을 위하여 현재와 같은 교육재원으로서는 효과적인 정책목표의 실현은 물론, 교육의 질적향상을 기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교육의 또 하나 과제는 내재교육의 자율화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과도한 중앙집권화 경향, 조직및 기능의 미분화 (未分化), 교육행정요원의 전문성 미흡, 그리고 지방교육재정의 종앙의존화가 들을 수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K.E.D.I.의 연구원은 「모든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과열과외의 해소방안 및 의무교육 연장, 교육세, 신설, 대학의 대폭확대 개혁으로 전진혁신 해결을 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든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행정부에서 검토을 서두를 경우 도리어 개선되지 않은 이전의 상태보다 더 못한 폐단을 가져올 우려도 있을것 같다.

외적요인을 제외한 내적요인에도 많은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교원의 자질적 조건, 교육의 환경적 조건과 관련된 직무과중및 교육풍토, 교육집단의 대립파동 이러한 모든것이 정책적으로 좋은 방안을 세운다해서 전부 다 심현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당전의 진람기에놓인 현시점에서 현재까지의 교육발전이 정치, 경제, 사회상황속에서 어떤 유형으로 발전하였으며 한국교육발전의 현위치는 외국과 국제적인 비교로 볼때 어느 수준에 있고, 국민의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해결방안을 찾을수 있을것 같다.

쉽하건 쉽하지 않건간에 미증유의 개혁물결앞에 서게된 현 한국의 교육계는 암파의 도전과 시련을 소화하고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루사위가 던져진」 때이다. <이창덕 기자>

◇사진은 한국교육 개발원이 주최한 「교육개발사업을 위한 국제회의」광경.

내적교육의 자율화, 또다른과제

저소득 장학금 지급에 문제있다

지난 7.30 조치로 인해 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에 큰 지원 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나 지방거주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학생의 경제적어려움과 극빈학생의 최소한의 생계보조를 위한 목적으로 심사된 저소득 장학금지급에 「특지입금」 문제점이 노정 (露呈) 됨 이의 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저소득장학금은 「A급」과 「B급」으로 나누어 저 총257명에게 지급되었는데 장학금 수혜자는 신청서, 전 (全) 학기 성적증명서, 재산세납부 증명서 (부동산세지불증부 무주택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각 학과별 서무실사를 거쳐 학과장이 추천하는 경로를통해 각과의 4%선에서 선정된다.

그러나 이번 저소득장학금지급에서 수혜대상자선정을 둘러싸고 몇몇 학생들이 보여준 행동은 대학인의 양식으로서는 놀비스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원인 있다.

이외에도 장학금 신청학생들이 「답한 (?) 」까지서 습지않았다는 일설이 있어 학생들의 민족을 사고있으며 몇몇과의 영향에 있는 학생이나 조교들이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개인, 형편의 학칙상 부시한 사례는 재고 (再考) 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신청학생들이 제출한 서무 (재산세 납부증명 또는 무주택증명서) 의 신빙성여부마저 적잖이 의혹을 일이 아님 수 없다.

이같은 사례로 모파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분배방식의 「갈라먹기」로 장학금을 수혜받는다 하더 보라는 장학금 시급에서 생기는 심경화음을 사전에방지하려는 미봉책으로 아예 성적순으로 장학금을 배정, 저소득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설의 미달로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가있어 「극빈학생」을 우호한다는 본래 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이러한 장학금 신청학생들이 「답한 (?) 」까지서 습지않았다는 일설이 있어 학생들의 민족을 사고있으며 몇몇과의 영향에 있는 학생이나 조교들이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개인, 형편의 학칙상 부시한 사례는 재고 (再考) 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신청학생들이 제출한 서무 (재산세 납부증명 또는 무주택증명서) 의 신빙성여부마저 적잖이 의혹을 일이 아님 수 없다.

이같은 사례로 모파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분배방식의 「갈라먹기」로 장학금을 수혜받는다 하더 보라는 장학금 시급에서 생기는 심경화음을 사전에방지하려는 미봉책으로 아예 성적순으로 장학금을배정, 저소득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설의 미달로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가있어 「극빈학생」을 우호한다는 본래 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이외에도 장학금 신청학생들이 「답한 (?) 」까지서 습지않았다는 일설이 있어 학생들의 민족을 사고있으며 몇몇과의 영향에 있는 학생이나 조교들이 장학금 수혜자 선정에 개인, 형편의 학칙상 부시한 사례는 재고 (再考) 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또한 신청학생들이 제출한 서무 (재산세 납부증명 또는 무주택증명서) 의 신빙성여부마저 적잖이 의혹을 일이 아님 수 없다.

이같은 사례로 모파에서는 몇몇 학생들이 분배방식의 「갈라먹기」로 장학금을 수혜받는다 하더 보라는 장학금 시급에서 생기는 심경화음을 사전에방지하려는 미봉책으로 아예 성적순으로 장학금을배정, 저소득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이 설의 미달로 혜택을 받지못한 경우가있어 「극빈학생」을 우호한다는 본래 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번에 시행된 저소득장학금 지급에서는 서무실장구분 과차원이아닌 학교당국으로 입원하여가고 입원한 서무실사를 거친 학과장의 자문을 요청하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제도상의 개선에 문된 경우도 있었으며 실제의 부주택 극빈 학생이 탈락한 사례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정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무실장구분 과차원이아닌 학교당국으로 입원하여가고 입원한 서무실사를 거친 학과장의 자문을 요청하는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중론이다.

그러나 제도상의 개선에

주위 동료돕는 학원풍토 조성 시급

「갈라먹기」식의 수혜 지양 돼야

□C.P.A합격 소감(所感)——

인내와 끈기로 목표에 도달했다

치음 쉽고쉽게만 발고시는 상당한 망설임이 있었다. 그러나 나와 같은 길을 갈는 동료 후배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될까 하는 바램에서 용기를 내어 펜을 들었다. 지던한계상 수험순비에 관련지만 살펴한다.

대학을 실패하고 군에 자원입대하여 일년 3년간. 제대하고 이인가려면 계획이 파괴되어 때늦게 재수를 하고자 학림에 다니던 시절, 지금 생각하면 아쉽한 시절이었다. 대학에 입학을 하고서도 1년간을 생활에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이러던중 고교동창이던 Y군의 권고로 CPA 에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학교에서 합격자를 별로 많이 보내지는 않지만, 시험에 두려워하거나 엄어진 것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가졌다. 그러나 무언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1학년 겨울방학중만 이해중 저 「부기정해」를 2회독, 조순「경제원론」을 4회독하고 CPA를 겨냥 준비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2월에 연구실에 입실을 하여 이때부터 본격적인 시험준비를 할 수 있었다.

2학년 때는 시험을 볼수 있지만 8월까지 「부기」「원가」「경제학」을 어느정도의 수준까지 올려 놓아야는 생각에서 학교에서 잠을 자며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이때 8월 문제유출사건이 일어나 시험에 대한 흥미를 잃어 버릴 것을 걱정하여 생각

정情과 지적 비판 시성細性을 정신

작가의 삶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이면(裏面)을 들추는 데서 오는 원초적인 호기심의 흡성(吸攝) 대상이라는 것 외에도, 창작인다운 체험과 상상력이 교차되는 산실(産室)의 배일을 들추게 하는기저(基底) 와도 같아 흥미롭다. 많지 않은 연륜속에 배출된 본대학 출신의 문인들, 지극히 비문학적(?)인 종교에서 초연히 자라 「미네르바의 후예」로 어느새 우리앞에 나타난 이들의 삶의 방법에 지인(知人)의 손을 빌어 들춰어를 비추어 본다. 범대학적인 문학토양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기획물을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미네르바의 후예들

① 허세욱 편

위의 인용시구들에서 우리가 보고 알수 있는 것과 같은 그의 생득의 심상한 정신적 깊은 포양속의 건전한 정신신백력을 우리는 믿고 기대할 수 있으니가 말씀이다.

끝으로 한마디 더 여기 첨가하고자 하는것은, 그의 이번 시집속의 상상수의 시편들이 그 표현에 있어 이미 현대시의 모든 기교들의 유추를 잘 돌파하고 꽃 피어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머릿말에서 「미네르바」고 자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한 반어라고만 내게는 보인다.

그는 또 우리 한국말을 가장 간절하게 다룰줄 아는 시인도 되어 있다.

—1980년10월 3 일, 개천절에

허세욱

1959 외대졸업

1960~68 중국 북경대만사대 대학원 중문과 졸업, 문학박사

1961년 부퍼 중국시단에서 중문시를 발표

1969 제1시집 「청마(青馬)」 발표

1976 제1수필집 「음직이는 고향(故鄕)」 발표

1980 제2시집 「방임으로 흐르는 강(江)」 발표

1980 현 외국어대 교수겸 도서관장

<다음은 소설가 송영림>

별성연습

—연극을 하는 친구에게

윤 준

내가 듣는 음악의
물살이 가닿는 곳은
지친 그대의 눈부신 배경
이름지을 수 없는
그대의 장면(江邊) 이다.
오늘도 삼박자 (三拍子) 의 무곡 (舞曲) 을
흐르게 하고
눈시울을 흘림이는 노을을 건너
나는 바람밭이에서
바람을 안은 채 그대를 만난다.
사랑해야 한다면
거친 번성기 (興奮期) 의 그대를
사랑해야 한다면
흐린 청명 (靑冥) 의 눈을 닦으며
따라남은 일마다의 그리움으로
별리는 손끝마을 만들 수 있으리
그대가 기다리는 부끄러움에서
내가슴이 찾아내는 스무개의 별자리가
흔들리는 눈길이 흘러어 가는
그대 생애 (生涯) 의 어부은 음계 (音階)를
오르기만 한다면 <영어과·4년>

작가의 삶은, 한 자연인으로서의 이면(裏面)을 들추는 데서 오는 원초적인 호기심의 흡성(吸攝) 대상이라는 것 외에도, 창작인다운 체험과 상상력이 교차되는 산실(産室)의 배일을 들추게 하는기저(基底) 와도 같아 흥미롭다. 많지 않은 연륜속에 배출된 본대학 출신의 문인들, 지극히 비문학적(?)인 종교에서 초연히 자라 「미네르바의 후예」로 어느새 우리앞에 나타난 이들의 삶의 방법에 지인(知人)의 손을 빌어 들춰어를 비추어 본다. 범대학적인 문학토양의 조성이 이루어지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기획물을 마련하였다. <편집자주>

서 정 주

시인 허세욱은 그 나이가 내게는 일찍 나온 아홉 또래쯤 밖엔 안되는 사람이지만, 막상 만나서 인형을 나누다가 보면 어느 사인지 한 간절한 심우가 돼 버리고, 때로는 나 보다도 나이가 한대 위인것 처럼 느끼게도 하는 그런 사람이다. 나이가 더 든듯이 느껴진다는 것은 그가 그림게 낮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웃음이마면저 이해하는 분수가 해박하고 함축(含蓄) 있음을 뜻, 고 하는 말이다. 이런 점은 그의 생래적인것과 아울러, 그가 중국문학의 오랜 성실 (誠實) 한 선덕 (涉獵) 을 통해 체득한것으로 보인다.

그의 시정신은 내가 보기에는 정 (情) 이 먼저고, 지적인 이해는 그의 정의 어절수 없는 사랑들이 사랑하면서 헤매다가 막다른데에서 그 사랑으로 알아내는 그런 이해의 성질로서 마련되어 있는것같다. 말하자면 애인이 그상대의 애인을 부모가 그의 자녀들을 지극한 정으로 사랑한 나머지에 누구 보다도 더 잘 이해할수 있는것 같은 그런 이해의 분수를 가지려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상상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많이 쓰다니다가
요년엔 장아지쓸을 길렀다.

참으로 많이 떠돌다가
유년엔 진흙밭에 멍아주를 심었다. —「장초기」에서—

강촌도 어느 장날 포장집에서
아낙네의 노란 분치를 세고

역마을 푸지근한 마파람
벽지에 적힌 낙서를 읽다가

낯선 곳이 좋네요.
—「파적」에서—

이상과 같은 그의 시의 무기교의 기교의 표현들 속에서 우리는 그의 건중하고 확산하는 절제한 정과 그것이 그 글에 마련해내는 마뜻한 이해의 모습의 어떠함을 잘 엮어 볼 수가 있다.

그러한 그로서도 때로는 그가 사는 이 세월이 견디기 어려운것

바람이 불면
배고픈 사람끼리 만나게 해 주
비가 오면
는 없는 새 끼리 모이게 해 주
—「비바람 속에」에서

이렇게 피게 처방해져 있을

그날 잠자코 있어도
밤사이 꽃이 피고
밤사이 꽃이 지듯
겉만을 입어서
겉만을 입어 보는거야
—「허성지간」에서

때도 더러 있긴 있는 모양이지만, 이런 시인의 처방이마면 시성 푸보 같은이에게도 아주 없었던것도 아니니까, 넬 저경 거리 까지 필것은 없을듯 한다.

우리는 한아름 싸리
곱게 빙기를 마련
횃불이 되고,
횃불은 활 활
방방했던 넬을 거닝한다.
—「모닥불」에서

그는 또 우리 한국말을 가장 간절하게 다룰줄 아는 시인도 되어 있다.

—1980년10월 3 일, 개천절에

허세욱

1959 외대졸업

1960~68 중국 북경대만사대 대학원 중문과 졸업, 문학박사

1961년 부퍼 중국시단에서 중문시를 발표

1969 제1시집 「청마(青馬)」 발표

1976 제1수필집 「음직이는 고향(故鄕)」 발표

1980 제2시집 「방임으로 흐르는 강(江)」 발표

1980 현 외국어대 교수겸 도서관장

<다음은 소설가 송영림>

그의 시 정신에는 정(情)이 먼저고, 지적(知的)인 이해는 그의 정의 어절수 없는 사랑들이 사랑하면서 헤매다가 막다른 데에서 그 사랑으로 알아내는 그런 이해의 성질로서 마련되어, 그 표현에 있어 이미 현대시의 모든 기교들의 유추(幼椎)를 돌파하여 꽃 피어 있다는 점이다

한국말을 가장 간절하게 다룰줄 아는 시인(詩人)

중국문학(中國文學)의 성실(誠實)한—

—탁마(琢磨)를 통해 체득한 시정신(詩精神)

두권의 책

「러시아 문화권」 번역 양상과 관련해서

러시아 사상사
(N. 베르쟈에프작 —이철역)
창조의 칠일(七日)
(B. 막시모프작 —이종진역)

최근 러시아문학권의 출중한 역저 (力著) 가 젊은 번역자들에 의해 활발히 소개되고있다. 러시아어 (語) 는 학술·문학서로서는 영문 (英文) 다음으로 많은 서책이 전세계적으로 이미 방간되어 있고, 일찍부터 본대학 교수진에 의해서 최초로 소개된 바 있다. 그동안 국제정치의 역할관계로 말미암아 19세기 문학서(學)만이 알려져 있었던 것이 지난해 부터 러시아의 정치·사상서적과 최근의 러시아작가의 문제작품이 속속 번역되어 공산권연구는 물론 노문학 (露文學) 에 관심있는 사람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발부터 올 9월 말까지 번역되거나 저작(著作) 된 년 서책은 거의10~12권이 있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러시아 혁명의 100년 사 (史) 를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편찬한 혁명사 (革命史) 를 비롯해 일련의 지성. 사상사(思想史) 계통, 소련에서 추방돼 서방세계에 활약하는 소위 반체제작가의 문제작품들 대종(大宗)을 이루고 있고, 한국과 소련의 관계를 역사적관점에서 다룬 몇권의 책이 소개되 흡관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아직 보편여가 아닌 노어 (露語) 란 번역하 작품도 일면적 고찰에 치우치거나, 부분 부분의 표절이 눈에 띄기도 하는것이다.

이월폰 오현과 출저를 발랍하는 러시아관계 서적 중에서 진짜 「알맹이」 있는 무궁의 책이 본대학 교수진에 의해 번역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럼(본대학 노어과 부교수) 교수의 「러시아 사상사」와 이종진(본대학 노어과 조교수) 교수의 「창조의 7일」 이 그것이다.

특특한 인격주의 (personalism) 철학자로서 혹은 박월한도스토옌스키해설자로서 유명한 러시아 사상가 「N. 베르쟈에프」 원저 (原著)「러시아 사상사」는 19세기와 20세기초의 러시아사상의 근년분제급 아포리즘 (aphorism) 적 필치로 기술된 문제작. 베르쟈에프는 소련에서 추방된 사상가로서, 오히려 고국에 대한 그의 뜨거운 향수가 어느누구보다 훌륭하게 러시아인가를 조망하는데 보편이 되었다고 말하고있다.

이종진 교수는 이방의 러시아권 번역가로서, 개척자인 선배급에이어 제2기(期)에 속하며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번역가. 이번에 번역한 「막시모프」의 「창조의 7일」은 주인공 「라지고프」를 통해 처음에는 열일한 혁명투사였다가 오랜 방황끝에 러시아 정교 (正敎) 로 귀의하는 과정을 성서의 7일창조에 상응시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막시모프」는 「문학은 체험도 운명도 아닌 차라리 숙명이다」고 선언한 러시아 소설가. 이 (李) 교수는 이소설의 주제가 박제제적 저항에 있으면서도 「솔제니친」과는 달리 예술성과 소설적 즐거움을 잃지 않아 감동을 더해준다고말한다.

이울러 유리나비에 「막시모프」의 저서가 최초로 간되어 번역문학상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백계의 중평 (衆評) 이다.

러시아권의 소개는 앞으로도 계속 활발해, 지리라는 것이 출판계의 의견이기도 하다. 정신 공산학 소연에서는 한국연구가 상상 밖으로 활발해, 소월 (素月) 을 비롯한 작가 연구로서도 많은 학위논문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배울로기상의 차이는 차치하고라도 앞으로의 「공산권연구」를 위한 학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망되는 것은 두말을 필요치 않을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도 「사상」「문학」계통의 이두권의 서적이 이분야의 진보를 시사하는바 크다하겠다. <만>

소련에서는「소월」연구로 학위 논문도

러시아 사상의 근본문제 다뤄… 러시아 사상사 예술성, 소설적 즐거움의 반체제 소설… 창조의 7일

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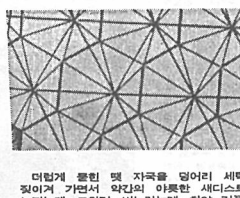
장시 (長詩)

곽 문 석

문득 느껴, 세탁부가 되고 싶음은 오름이 유독 실망의 날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루종일 세검 (世劍) 에 여겨서 구역질이 수없었던 날에도 난 하얀 잠옷을 입을 여유가 있었으니까 말이다.

난 내옷을 빨아 입어 본 적이 드물다. 간혹 빨아입어 보기에도 오형이 없어서 입혀이 채 빠지질 않거나 넬 벙쳐져서 입고나면 옷에서 비눗내가 솔솔 나는 것이다. 세탁 (洗濯) 의 방법은 (?) 적인 면에서는 서툴기 한이 없지만 세탁이라는 단어가 내포한 의미는 어렴풋하게 안다고 부고할지만 말할수 있다.

친구를 너무 알아 실망하고, 또 그러한 실망을 하는 내 자신에 실망하고…이럴때면 난 문득 세탁부의 생리대로 신전대사가 행해지는 듯한 착각 (錯覺) 을 느낀다. 그런 착각은 내 눈앞에 가득 산더미처럼 쌓인 때묻고 일찍진 빨때갈을 그려 놓는다. 난 물을 길어 물통에 가득 채우고 빨때갈을 하나씩 하나씩 비누질을 한다. 더럽게 묻힌 뗏자국을 벙어리 세탁비누로 마구 찍어거가면서 악간의 아픔한 세디스트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묘 (妙) 한 건 비누라는 게 하얀 거품을 내어놓는 것이다.



더럽게 묻힌 뗏 자국을 벙어리 세탁비누로 마구 찍어거 가면서 약간의 아픔한 세디스트적인 쾌감을 느끼는데 묘한건 비누라는게 하얀 거품을 내어놓는 것이다.

하얀 거품이 검은 때를 먹고 스스로가 희석으로 점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노라면 이건 또 한편 지고 (至高) 의 숭고를 느끼기도 한다. 먹을 갈때의 곽 곽 피어오르는 묵향(墨香)의 운치 (韻致) 와도 같이 수화이동선 (羽化而登仙) 하는 고답 (高踏) 도 멋졌다.

그런데 비누칠이 끝난 후 벙쳐낼 때는 잔혹되어 떠오르는 비눗거품을 보노라면 친구의 「입종 (臨終) 을 대하는 듯해 벙쳐낸 빨때를 짜는 손이 떨리는 것이다. 그 많은 빨때를 한점씩 빨랫줄에 걸어널 때면 가는 친구의 상여에 날린 나부명이를 보는 것같아 그만 하늘로 고개를 들리곤 한다.

부는바람에 빨때가 마르고 한점씩 걸어서 차곡차곡 마른 빨때를 개키는 하얗게 형광빛 새색가 깨끗하다 못해 시려서 순결하다는 게 서럽기까지하고 그러한 빨때가 다시 옷이 되어 한 사람씩 한사람씩 입고 나가서 또 때를 묻혀서 얼룩져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 때면 난 어떠해줘의 착각에서 일찬 (一饌) 이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어진다.

친구를 너무 알아 실망하고, 또 그러한 내자신에 실망하고…, 이럴때 잠시(暫時) 의 착각 (錯覺) 이 어전한 위경을 몇느라면 난 잠시 (暫時) 하얀 잠옷을 입을 여유 (餘裕) 를 갖는 것이다.

<동국어과·1년>

고답(高踏)의 경지 이른 묵향의 운치

FBS 2학기 주간 편성표

	월	화	수	목	금
8:30	교가, 개시 Ment				
40					
9:40	아침 산책				
12:00	News, Campaign				FBS 종합뉴스
10	안녕하세요 Pop parade	Around the world	전통의향기	고전 음악실	
20					Campus 전경
30			영상의선율		
55		하오의 틀래식		FBS 음악실	여학생 휴게실
1:00			FBS Punch		
20	Request 대행진				
4:30	News, Campaign				
40	Classic 소품실	컬음의 메아리	가곡의동산	미네르바 사색	Program Highlight
5:00					

이문만평

<파연 세구나>

모든 企業이 英語実力者를 찾고 있읍니다!

11월호

時事英語研究

Why OPEC Is Vulnerable
(사라진 OPEC의 횡포와 천응성의 와해 가능성) ····· by William M. Brown & Herman Kahn
Little to Choose Between: Reagan and Carter on Asia
(카아터와 리건의 아시아 정책) ····· from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Historic Function of a U.S. Third Party ····· by Henry S. Commager
Remodeling A Technological Society ····· from the Horizons
特別 새 企劃 英語로 읽는 韓国文学「탑돌이」····· 崔貞熙 原作 / G. Y. Poitras 譯
映画特輯 MANDINGO / 크레이머, 크레이머 ●時事英語カセットに収録●
■英語会話(Welcome to English) ■TOEFL Test/Word Power 특집 ■英文法特論/英語史 新稿

값 1,400원

英語世界

Grain: the Most Powerful Weapon (곡포의 그날-식량이 전략무기가 될 때)
10 Most Important Things in a Marriage (現代人의 結婚十訓)
Satisfying Life (무료인은 삶의 조건)
主要記事 / 英語講座 / 映画台詞 크레이머, 크레이머

값 1,3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時事英語社
정기구독문의처
서울 (269) 6624~5 (265) 0509
부산 (43) 3007 42-0163
대구 (45) 8890 대전 (2) 4370
광주 (2) 2376 전주 (2) 3849
수원 (51) 9316 인천 (2) 7170

大学生을 위한 新刊
時事英語社 발행

1 大學特講 時事英語讀本 CURRENT ENGLISH READERS I 크라운版 / 232面 / 값 3,000원
2 英譯 韓國名詩選 Master Poems from Modern Korea 金敏珏 譯編 / 菊版 / 296面 / 값 3,500원
3 最新 就職英語問題集 菊版 / 308面 / 값 3,000원
4 뉴우월드 英作文辞典 콘사이스版 / 676面 / 값 3,500원
5 New TOEFL (카세트 3개 별도로 있음) 4·6倍版 / 224面 / 값 3,000원 (카세트 값 9,000원)
6 名作 AFKN드라마 카세트 全10권 / 각권 Text 포함 / 값 2,500원